

2022
수특

2022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03 백록담 정지용 분석 서술형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1

절정(絶頂)에 가까울수록 삐죽채꽃 키가 점점 소모(消耗)된다.(한라산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삐죽채꽃이 작게 보이는 모습을 표현함)(‘한라산을 오르면서 본 풍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선지로 출제도리 수 있습니다.) 한 마루 오르면 허리가 슬어지고 다시 한 마루 위에서 모가지가 없고 나중에는 얼굴만 가웃 내다본다. [화문(花紋)처럼(직유법) 판(版) 박힌다.](키가 완전히 줄어들어 지면에 꽃무늬처럼 박힌 듯이 보임. 백록담의 등반 과정을 삐죽채꽃의 키 높이 변화를 통해 나타냄.) 바람이 차기가 함경도 끝과 맞서는(한라산의 정상을 국토의 분단인 ‘함경도 끝’과 비교하여 제시함) 데서 삐죽채 키는 아주 없어지고도 팔월 한철엔 흩어진 성신(星辰)처럼 난만(爛漫)하다.(꽃을 별의 이미지에 빗대어 표현함) 산 그림자 어둑어둑하면 그러지 않아도 삐죽채 꽃밭에서 별들이 켜든다. 제자리에서 별이 옮긴다. 나는 여기서 기진(기운이 다해 힘이 없어짐)(단어 뜻을 확인하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했다.

절정에 가까이 와서 기진함

2

암고란(巖古蘭), 환약(丸藥)(약재를 가루로 만들어 반죽하여 작고 둥글게 빚은 약. 기진한 환자에게 기운을 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같이 어여쁜 열매로 목을 축이고 살아 일어섰다.(주체는 화자 ‘나’임. 암고란의 열매를 따먹고 기운을 차림.)(‘화자의 구체적인 행위가 시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선지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휴식을 취함

3

백화(白樺)(자작나무) 옆에서 백화가 측루(髑髏)가 되기까지 산다.(살아 있는 자작나무와 죽은 자작나무가 함께 있음) 내가 죽어 백화처럼 힐 것이 송없지(말이나 행동 따위가 불쾌할 정도로 흉하지) 않다.

자작나무를 봄

4

귀신도 쓸쓸하여 살지 않는 한 모롱이(산모퉁이의 휘어 돌린 곳), 도체비꽃(도깨비불을 닮아 도체비꽃이라고도 불림)이 낮에도 혼자 무서워 파랗게 질린다.(‘화자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옳지 않은 선지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도체비꽃을 봄

5

바야흐로 해발 육천 척 위(화자의 위치)에서 마소가 사람을 대수롭게 아니 여기고 산다.(자연과 인간이 어울려 살아감) 말이 말끼리, 소가 소끼리 망아지가 어미 소를, 송아지가 어미 말을, 따르다가 이내 헤어진다.

해발 육천 척 위에서 마소를 만남

6

첫 새끼를 낳느라고 암소가 몹시 혼이 났다.(새끼를 낳느라 힘든 암소) 열걸에 산길 백 리를 돌아 서귀포로 돌아났다.(암소가 새끼를 낳고 멀리 떠나 버림) 물도 마르기 전에 어미를 여윈 송아지(민족의 정체성을 잃은 우리 백성을 상징함)(구절의 의미를 확인하는 문제에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는 움매에 움매에 울었다. 말을 보고도 등산객을 보고도 마구 매어 달렸다. 우리 새끼들도 모색(毛色)이 다른 어미한테 맡길 것을 나는 울었다.(어미를 잃은 송아지가 다른 어머니에게 맡겨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고 일제 강점기에 정체성을 잃은 우리 민족의 모습을 떠올리며 슬퍼함)

어미를 여윈 송아지를 보고 슬픔을 느낌

7

[풍란(風蘭)이 풍기는 향기, 피꼬리 서로 부르는 소리, 제주 휘파람새 휘파람 부는 소리, 돌에 물이 따로 구르는 소리, 먼 데서 바다가 구길 때 쇠아 쇠아 술 소리, 물푸레 동백 떡갈나무 속에서 나는 길을 잘못 들었다가 다시 침년출 기여간 흰 돌바기 고부랑길로 나섰다.](후각적, 청각적,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한라산의 자연물을 생동감 있게 묘사함)(‘다양한 감각을 통해 생동감 있게 대상을 나타내었다.’라는 선지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문득 마주친 아롱점말이 피하지 않는다.

한라산을 오르다가 아롱점말을 마주침

8

고비고사리 더덕순 도라지꽃 취 샷갓나물 대풀 석용(石葍)(한라산에 서식하는 다양한 식물들) 별과 같은 방울을 달은 고산 식물을 새기며 취(醉)하며 자며 한다.(동물들이 한라산의 다양한 식물을 먹으며 살고 있음) 백록담 조찰한(맑고 깨끗한) 물을 그리어 산맥 우에서 짓는 행렬이 구름보다 장엄하다. 소나기 늦늦 맞으며 무지개에 말리우며 궁둥이에 꽃물 이겨 붙인 채로 살이 붓는다.

동물들이 여러 식물을 취하며 살아감

9

가재도 그지 않는 백록담 푸른 물에 하늘이 돈다.(맑고 깨끗한 백록담에 하늘이 비친 모습) 불구(不具)에 가깝도록 고단한 나의 다리(힘들게 정상까지 올라오느라 지친 모습)를 돌아 소가 갔다. 쫓겨 온 실구름 일말(一抹)에도 백록담은 흐리운다.(작은 구름에도 흐려질 정도로 백록담이 맑고 깨끗함) 나의 얼굴에 한나절 포긴 백록담은 쓸쓸하다. 나는 깨다 졸다 기도(祈禱)조차 잊었더니라.(몰아의 경지를 느낌)

백록담을 보며 몰아의 경지를 느낌

- 정지용, '백록담'

■ 핵심 정리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산문시
- 성격 : 산문적, 신비적, 묘사적
- 특징
 - ① 한라산을 등반하며 보게 된 정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함.
 - ② 자연과의 합일(合一), 몰아(沒我)의 경지 등 동양적 세계관이 드러남.
- 주제 : 한라산의 아름다운 경치와 백록담에서 느끼는 신비로움
- 구조
 - 1연 : 절정에 가까이 와서 기진함
 - 2연 : 휴식을 취함

- 3연 : 자작나무를 봄
- 4연 : 도체비꽃을 봄
- 5연 : 해발 육천 척 위에서 마소를 만남
- 6연 : 어미를 여인 송아지를 보고 슬픔을 느낌
- 7연 : 한라산을 오르다가 아롱점말을 마주침
- 8연 : 동물들이 여러 식물을 취하며 살아감
- 9연 : 백록담을 보며 몰아의 경지를 느낌

■ 해제

이 작품은 한라산의 풍경과 그에 따른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한 시이다. 화자가 한라산의 정상에 이르는 과정과 정상에서의 상황이 잘 드러나 있다. 화자는 한라산에서 어미를 여인 송아지를 보면서 일제 강점기에 정체성을 잃은 우리 민족의 모습을 연상하고 있으며, 백록담의 맑고 순수한 모습에서 몰아의 경지를 느끼고 있다.

■ 이해와 감상

시집의 제목이기도 한 이 시는 산문형의 장시(長詩)이다. 정지용의 첫 시집 <정지용시집>을 1935년에 낸 후에, 그 이전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경향의 시집 <백록담>을 1941년에 내놓는다. 전자를 대표하는 자연이 바다라고 한다면 후자는 산을 중심으로 한 세계에 관심을 집중시킨다. 이러한 바다에서 산으로 이동은 단순히 시적 소재만의 이동이 아니라 그의 현실 인식 내지는 내면 의식의 변모와도 관련된다. 백록담의 세계는 자연과의 합일(合一)을 추구한다. 그 자연은 무욕 청정의 세계로 자아는 그 대자연의 선경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인생을 관조하기도 한다.

1절. 여기에서는 화자가 산록에서 산정에 이르기까지의 등반 과정이 빼국채꽃 줄기의 길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꽃 키가 점점 줄어 나중에는 꽃무늬처럼 지면에 판 박힌 모습을 통해 백록담 가까운 산머리의 정경을 드러내며, 아울러 함경도 끝에서나 불 찬바람과 세기가 같아지는 꼭대기에서 꽃 키는 완전 소멸되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이미지로 순간 만난다. 흩어져 핀 꽃을 8월 밤하늘의 성신에 비유한 것이지만, 이 결합은 꽃과 별을 이미지 통합하게 되어 산정에서의 흥취를 신비롭게 만든다. 산 그림자 어둑해질 저녁 무렵, '별'로 비유한 꽃들이 자리를 옮겨 하늘의 별로 화하는 이 신비로움에 화자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마는 것이다. 극단의 도취경을 읊은 대목이다.

2절. 기진했던 몸이 되살아난 것은 이 자연의 영약(靈藥)을 먹었기 때문이라 한다. 어여쁜 암고란(巖古蘭)의 그윽하고 신비한 열매를 마치 환약인 양 먹었다는 것에서 화자가 아름다운 광경에 얼마나 취했는지 알 수 있다. 바위 틈서리에 난 오래된 난초라 하여 일부러 신비적으로 그렸고, 또 실제로 난초 열매를 먹고 살아났다는 의미도 아니다. 그 황홀경을 그리기 위해 짐짓 아양을 부려 보는 것이다. 정신의 여유와 동양적 멋의 한 흥취이다.

3절. 백화나무들 사이에 고사목이 된 백화나무들이 하얀 등걸을 드러낸 채 서 있는 정경이다. 그 죽은 나무의 하얀 몸뚱이를 촉루(해골)라 하여 흰빛의 이미지를 두드러지게 한다. 나무 이름이 '백화(白樺)'인데다 촉루를 결합하여 신비롭고 정갈한 이미지를 생각하니, 보기 흉하지는 않겠다 여겨지기도 한다.

4절. 도체비꽃이 파랗게 핀 정경이다. 정지용의 시에 푸르고 찬 이미지가 많이 보이는 것은 그것을 통해 감성보다는 지성적 성격을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 때문인데, 여기서도 도체비꽃이 핀 정경을 그리면서도 감상에 빠지지 않으려는 노력이 보인다. 쓸쓸한 정경과 파랗게 질렸다는 표현은 기막히게 잘 어울린다. 너무 쓸쓸하여 귀신(鬼神)도 살지 못하는 곳이라 해 놓고 거기에 귀신의 하나인 도체비(도깨비) 이름을 딴 꽃 피었다고 하여, 언뜻 모순되어 보이는 진술을 통해 쓸쓸함의 정도를 시각적으로 강화한다. 하여튼 이 절에서는 산정의 신비로움을 극대화한다.

5절. 마소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과 소가 한데 어울려 사는 환상적 공간으로 그린다. 해발 6천 척만큼의 격차로 속세와의 단절된 거리를 드러내며, 신비로운 광경을 그린다.

6절. 이 절은 화자가 목격한 작은 사건이다. 첫 새끼를 낳느라 혼이 난 어미소가 놀라 달아나고, 새끼는 아무나 어미인 줄 알고 매달리는 사건이다. 저 송아지가 털빛 다른 어미에게서 길러질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된다면 하고 생각하니 송아지가 가여워 울고 만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달 의미에 비해서 문장의 길이가 매우 압축되어 있다. 산문시에서도 정지용이 언어를 아끼고 절제한 흔적이 역력하다.

7절. 온갖 아름다운 정경들이 펼쳐진다. 후각과 청각의 다양한 감각 이미지를 동원하면서 산에서 맛보는 즐거움을 표출한다. 길을 잘못 든 것도 유쾌하게 받아들이며, 얼룩점박이 말도 피하지 않는 선경(仙境)으로 그리고 있다.

8절. 온갖 식물들이 서로 벗어나며 자라는 공간을 노래한다. 고산 식물인 데다 별 같은 이슬마저 머금었다는 것에서 신비로움은 더해 가는데, 이 고산 식물과 온갖 다른 식물이 벗어나 자라는 것을, 사귀다 취해서 잠드는 모습으로 그리는 데서 신비로움은 극에 달한다. 백록담 그 조찰한 물을 보러 행렬을 이룬 무리가 산맥 위에 장엄하게 둘러서 있고, 소나기를 노상 맞지만 무지개로 날이 개면 말리고, 미끄러져 엉덩이에 꽃물이 들고 살이 부은 채 백록담을 향해 가는 즐거움이 가득하다.

9절. 백록담의 청정 무구(淸淨無垢)한 모습이다. 그 맑은 호수에 한나절 나의 얼굴을 포개고 보는 일체화의 경지에 달한다. 물의 명징(明澄)함과 정신의 순일(純一)함이 합치되는 순간이다. 그 정신의 투명한 상태를 쓸쓸하다고 표현했다. 깨다 졸다 기도조차 잃은 몰아(沒我)의 경지에 빠지고 만다.

산정에 이르는 도정(道程)의 신비와 정겨움, 즐거움으로 그려지다 드디어 산정에 이르러 자아와 세계가 혼융(混融)하여 일체화되면서 등반의 과정은 절정에서 멈추며, 화자의 정신도 함께 멈추어 절대적 고요와 정신의 투명성이 만나 동양적 세계관을 드러내는 것이다.

내용확인 문제(사용설명서 반영) - 암기용

1. 감상 포인트와 주제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한라산 의 풍경과 그에 따른 화자의 정서 를 형상화한 시이다. 화자가 한라산의 정상 에 이르는 과정 과 정상 에서의 상황이 잘 드러나 있다. 화자는 한라산 에서 어미 를 여인 송아지 를 보면서 일제 강점기에 정체성 을 잃은 우리 민족 의 모습을 연상하고 있으며, 백록담의 맑고 순수한 모습에서 물아 의 경지를 느끼고 있다.
주제	한라산의 아름다운 경치 와 백록담 에서 느끼는 신비로움

2. 작품 전체 구성

1연	절정에 가까이 와서 기진함
2연	휴식 을 취함
3연	자작나무 를 봄
4연	도체비꽃 을 봄
5연	해발 육천 척 위에서 마소 를 만남
6연	어미를 여인 송아지 를 보고 슬픔 을 느낌
7연	한라산 을 오르다가 아롱점말 을 마주침
8연	동물들이 여러 식물 을 취하며 살아감
9연	백록담 을 보며 물아 의 경지를 느낌

3. 시적 상황에 담긴 화자의 현실 인식

시구	시적 상황	화자의 인식
물도 마르기 전에 어미를 여인 송아지는 움매애 움매애 울었다.	갓 태어난 송아지 가 어미 를 잃음.	일제 강점기 에 우리 민족 이 함께 살지 못하는 상황 에 놓임.
우리 새끼들도 모색이 다른 어미한테 맡길 것을 나는 울었다.	어미 를 잃은 송아지 를 보며 우리 민족 의 불행한 현실 을 떠올리며 슬퍼함 .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 이 정체성 을 잃게 됨.

4. 묘사된 소재에 따른 '백록담'의 구성

1~4연	초목 : 백록담 부근까지 올라 육체의 쇠진함 을 토로하던 화자 가 암고란 을 먹고 기운을 차린 후에 백화 와 도체비꽃 을 보며 정서 를 드러냄.
5~7연	마소 : 한라산의 마소 에 대한 묘사 와 그에 대한 화자의 정서 를 드러냄.
8~9연	백록담 : 백록담 주변에 자라는 식물 들을 묘사한 후 맑고 깨끗한 백록담 을 바라보며 느끼는 정서 를 드러냄.

5. 표현상의 특징

- 각 연마다 **시행**을 나누지 않는 **신문**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함.
- **후각적**, **청각적**,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함.
- **자연물**을 생동감 있게 묘사함.
- **직유법**을 통해 **시어**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함.

내용 확인 문제(사용설명서 반영) - TEST 1단계

1. 감상 포인트와 주제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라산의 풍경과 그에 따른 화자의 □서를 형상화한 시이다. 화자가 한라산의 □상에 이르는 □정과 □상에서의 상황이 잘 드러나 있다. 화자는 □라산에서 □미를 여인 □아지를 보면서 일제 강점기에 □체성을 잃은 우리 □족의 모습을 연상하고 있으며, 백록담의 맑고 순수한 모습에서 □아의 경지를 느끼고 있다.
주제	한라산의 아름다운 □치와 □록담에서 느끼는 □□로움

2. 작품 전체 구성

1연	□정에 가까이 와서 □진함
2연	□식을 취함
3연	□□나무를 봄
4연	□□비꽃을 봄
5연	해발 육천 척 위에서 □소를 만남
6연	어미를 여인 □□지를 보고 □품을 느낌
7연	□□산을 오르다가 □□점말을 마주침
8연	□물들이 여러 □물을 취하며 살아감
9연	□록담을 보며 □아의 경지를 느낌

3. 시적 상황에 담긴 화자의 현실 인식

시구	시적 상황	화자의 인식
물도 마르기 전에 어미를 여인 송아지는 움매애 움매애 울었다.	갓 태어난 □아지가 □미를 잃음.	일제 □□기에 우리 □족이 함께 살지 못하는 □황에 놓임.
우리 새끼들도 모색이 다른 어미한테 맡길 것을 나는 울었다.	□미를 잃은 □아지를 보며 우리 □족의 불행한 □실을 떠올리며 □퍼함.	일제 강점기에 우리 □족이 □□성을 잃게 됨.

4. 묘사된 소재에 따른 '백록담'의 구성

1~4연	□목 : □록담 부근까지 올라 육체의 □진함을 토로하던 □자가 □고란을 먹고 기운을 차린 후에 □화와 □□비꽃을 보며 □서를 드러냄.
5~7연	□소 : 한라산의 □소에 대한 □사와 그에 대한 화자의 □서를 드러냄.
8~9연	□록담 : □록담 주변에 자라는 □물들을 묘사한 후 맑고 깨끗한 □록담을 바라보며 느끼는 □서를 드러냄.

5. 표현상의 특징

- 각 연마다 □행을 나누지 않는 □문 형식으로 □상을 전개함.
- □각적, □각적, □각적 이미지를 활용함.
- □연물을 생동감 있게 묘사함.
- □유법을 통해 □어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함.

내용 확인 문제(사용설명서 반영) - TEST 2단계

1. 감상 포인트와 주제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의 풍경과 그에 따른 화자의 □□를 형상화한 시이다. 화자가 한라산의 □□에 이르는 □□과 □□에서의 상황이 잘 드러나 있다. 화자는 □□□에서 □□를 여인 □□□를 보면서 일제 강점기에 □□□을 잃은 우리 □□의 모습을 연상하고 있으며, 백록담의 맑고 순수한 모습에서 □□의 경지를 느끼고 있다.
주제	한라산의 아름다운 □□와 □□□에서 느끼는 □□□□

2. 작품 전체 구성

1연	□□에 가까이 와서 □□□
2연	□□을 취함
3연	□□□□를 봄
4연	□□□□을 봄
5연	해발 육천 척 위에서 □□를 만남
6연	어미를 여인 □□□를 보고 □□을 느낌
7연	□□□을 오르다가 □□□□을 마주침
8연	□□들이 여러 □□을 취하며 살아감
9연	□□□을 보며 □□의 경지를 느낌

3. 시적 상황에 담긴 화자의 현실 인식

시구	시적 상황	화자의 인식
물도 마르기 전에 어미를 여인 송아지는 움매애 움매애 울었다.	갓 태어난 □□□가 □□를 잃음.	일제 □□□에 우리 □□이 함께 살지 못하는 □□에 놓임.
우리 새끼들도 모색이 다른 어미한테 맡길 것을 나는 울었다.	□□를 잃은 □□□를 보며 우리 □□의 불행한 □□을 떠올리며 □□□.	일제 강점기에 우리 □□이 □□□을 잃게 됨.

4. 묘사된 소재에 따른 '백록담'의 구성

1~4연	□□ : □□□ 부근까지 올라 육체의 □□□을 토로하던 □□가 □□□을 먹고 기운을 차린 후에 □□와 □□□□을 보며 □□를 드러냄.
5~7연	□□ : 한라산의 □□에 대한 □□와 그에 대한 화자의 □□를 드러냄.
8~9연	□□□ : □□□ 주변에 자라는 □□들을 묘사한 후 맑고 깨끗한 □□□을 바라보며 느끼는 □□를 드러냄.

5. 표현상의 특징

- 각 연마다 □□을 나누지 않는 □□ 형식으로 □□을 전개함.
- □□□, □□□, □□□ 이미지를 활용함.
- □□□을 생동감 있게 묘사함.
- □□□을 통해 □□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함.

내용 확인 문제(사용설명서 반영) - TEST 3단계

1. 감상 포인트와 주제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_____의 _____과 그에 따른 화자의 _____를 형상화한 시이다. 화자가 _____의 _____에 이르는 _____과 _____에서의 상황이 잘 드러나 있다. 화자는 _____에서 _____를 여인 _____를 보면서 일제 강점기에 _____을 잃은 우리 _____의 모습을 _____하고 있으며, _____의 맑고 _____모습에서 _____의 _____를 느끼고 있다.
주제	_____의 아름다운 _____와 _____에서 느끼는 _____

2. 작품 전체 구성

1연	_____에 가까이 와서 _____
2연	_____을 _____
3연	_____를 _____
4연	_____을 _____
5연	_____ 육천 척 위에서 _____를 _____
6연	_____를 여인 _____를 보고 _____을 느끼
7연	_____을 오르다가 _____을 마주침
8연	_____들이 여러 _____을 취하며 살아감
9연	_____을 보며 _____의 _____를 느낌

3. 시적 상황에 담긴 화자의 현실 인식

시구	시적 상황	화자의 인식
물도 마르기 전에 어머니를 여인 송아지는 움매애 움매애 울었다.	갓 태어난 _____가 _____를 잃음.	일제 _____에 우리 _____이 함께 _____ 못 하는 _____에 놓임.
우리 새끼들도 모색이 다른 어머니한테 맡길 것을 나는 울었다.	_____를 잃은 _____를 보며 우리 _____의 불행한 _____을 떠올리며 _____.	일제 _____에 우리 _____이 _____을 잃게 됨.

4. 묘사된 소재에 따른 '백록담'의 구성

1~4연	_____ : _____까지 올라 _____의 _____을 _____하던 _____가 _____을 먹고 _____을 차린 후에 _____와 _____을 보며 _____를 드러냄.
5~7연	_____ : _____의 _____에 대한 _____와 그에 대한 _____의 _____를 드러냄.
8~9연	_____ : _____ 주변에 자라는 _____들을 _____한 후 _____ 깨끗한 _____을 _____ 느끼는 _____를 드러냄.

5. 표현상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연마다 _____을 나누지 않는 _____으로 _____을 _____함. • _____, _____, _____를 활용함. • _____을 _____ 있게 묘사함. • _____을 통해 _____의 _____를 _____으로 표현함.

서술형 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

절정에 가까울수록 삐죽채꽃 키가 점점 소모된다. 한 마루 오르면 허리가 스러지고 다시 한 마루 우에서 모가지가 없고 나중에는 얼굴만 가웃 내다본다. 화문(花紋)처럼 판 박힌다. 바람이 차기가 함경도 끝과 맞서는 데서 삐죽채 키는 아주 없어지고도 팔월 한철엔 흩어진 성신(星辰)처럼 난만하다. 산그림자 어둑어둑하면 그러지 않아도 삐죽채 꽃밭에서 별들이 켜 든다. 제자리에서 별이 옮긴다. 나는 여기서 기진했다.

2

암고란(巖古蘭), 환약같이 어여쁜 열매로 ㉠ 목을 축이고 살아 일어섰다.

3

백화(白樺) 옆에서 백화가 축루가 되기까지 산다. 내가 죽어 백화처럼 힐 것이 송 없지 않다.

4

귀신도 쓸쓸하여 살지 않는 한 모롱이, 도체비꽃이 낮에 혼자 무서워 파랗게 질린다.

5

바야흐로 해발 육천 척 우에서 마소가 사람을 대수롭게 아니 여기고 산다. 말이 말끼리 소가 소끼리, 망아지가 어미 소를 송아지가 어미 말을 따르다가 이내 헤어진다.

6

첫 새끼를 낳노라고 암소가 몹시 혼이 났다. 열결에 산길 백 리를 돌아 서귀포로 달아났다. 물도 마르기 전에 어미를 여윈 송아지는 움매—움매—울었다. 말을 보고도 등산객을 보고도 마구 매어 달렸다. ㉡ 우리 새끼들도 ㉢ 모색(毛色)이 다른 어미한테 말길 것을 나는 울었다.

7

풍란이 풍기는 향기, 피꼬리 서로 부르는 소리,

제주 휘파람새 휘파람 부는 소리, 돌에 물이 따로 구르는 소리, 먼 데서 바다가 구길 때 쇠—쇠—솔소리, 물푸레 동백 떡갈나무 속에서 나는 길을 잘못 들었다가 다시 침년출 기어간 흰 돌박이 고부랑길로 나섰다. 문득 마주친 아롱점말이 피하지 않는다.

8

고비 고사리 더덕순 도라지꽃 취 샷갓나물 대풀 석용 별과 같은 방울을 달은 고산 식물을 ㉣ 새기며 취하며 자며 한다. 백록담 조출한 물을 그리어 산맥 우에서 짓는 행렬이 구름보다 장엄하다. 소나기 늦날 맞으며 무지개에 말리우며 궁둥이에 꽃물 이겨 붙인 채로 살이 붓는다.

9

가재도 기지 않는 백록담 푸른 물에 하늘이 돈다. 불구에 가깝도록 고단한 나의 다리를 돌아 소가 갔다. 쫓겨 온 실구름 일말에도 백록담은 흐리운다. 나의 얼굴에 한나절 포긴 백록담은 쓸쓸하다. 나는 깨다 졸다 기도조차 잊었더니라.

- 정지용, 「백록담(白鹿潭)」

1. 윗글에서 ㉠과 ㉣의 주체는 무엇인지 각각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2. 이 작품의 창작 시기를 고려하여 ㉡와 ㉢의 의미를 각각 쓰시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 절정(切情)에 가까울수록 삐죽채꽃 키가 점점 소모(梳毛)된다. 한 마루 오르면 허리가 스러지고 다시 한 마루 우에서 모가지가 없고 나중에는 얼굴만 가웃 내다본다. 화문(花紋)처럼 판(板) 박힌다. 바람이 차기가 함경도 끝과 맞서는 데서 삐죽채 키는 아주 없어지고도 ㉡ 팔월 한철엔 흩어진 성신(星辰)처럼 난만하다. 산그림자 어둑어둑하면 그러지 않아도 삐죽채 꽃밭에서 별들이 켜 든다. 제자리에서 별이 옮긴다. 나는 여기서 ㉢ 기진했다.

2
 암고란(巖古蘭), 환약같이 어여쁜 열매로 목을 축이고 살아 일어섰다.

3
 백화(白樺) 옆에서 ㉣ 백화가 측루가 되기까지 산다. 내가 죽어 백화처럼 흰 것이 송 없지 않다.

4
 귀신도 쓸쓸하여 살지 않는 한 모롱이, 도체비꽃이 낮에 혼자 무서워 파랗게 질린다.

5
 바야흐로 해발 육천 척 우에서 ㉤ 마소가 사람을 대수롭게 아니 여기고 산다. 말이 말끼리 소가 소끼리, 망아지가 어미 소를 송아지가 어미 말을 따르다가 이내 헤어진다.

6
 첫 새끼를 낳노라고 암소가 몹시 혼이 났다. 열결에 산길 백 리를 돌아 서귀포로 달아났다. 물도 마르기 전에 어미를 여윈 송아지는 움매—움매—울었다. 말을 보고도 등산객을 보고도 마구 매어 달렸다. 우리 새끼들도 모색(毛色)이 다른 어미한테 말길 것을 나는 울었다.

7
 풍란이 풍기는 향기, 꾀꼬리 서로 부르는 소리, 제주 휘파람새 휘파람 부는 소리, 돌에 물이 따로

구르는 소리, 먼 데서 바다가 구길 때 쇠— 쇠— 솔소리, 물푸레 동백 떡갈나무 속에서 나는 길을 잘못 들었다가 다시 침년출 기여간 흰 돌박이 고부랑길로 나섰다. 문득 마주친 아롱점말이 피하지 않는다.

8
 고비 고사리 더덕순 도라지꽃 취 샷갓나물 대풀 석용(石葺) 별과 같은 방울을 달은 고산 식물을 새기며 취하며 자며 한다. 백록담 ㉥ 조출한 물을 그리어 산맥 우에서 짓는 행렬이 구름보다 장엄하다. 소나기 늦날 맞으며 무지개에 말리우며 궁둥이에 꽃물 이겨 붙인 채로 살이 붓는다.

9
 가재도 기지 않는 백록담 푸른 물에 하늘이 돈다. 불구(不具)에 가깝도록 고단한 나의 다리를 돌아 소가 갔다. 쫓겨 온 실구름 일말(一抹)에도 백록담은 흐리운다. 나의 얼굴에 한나절 포긴 백록담은 쓸쓸하다. 나는 깨다 졸다 기도(祈禱)조차 잊었더니라.

- 정지용, '백록담(白鹿潭)'

3. 시적 화자가 ㉠을 통해 나타내고자 한 것을 조건에 따라 작성하시오.

- <조건>
- 한 문장으로 작성할 것.
 - 구체적 자연물 2가지를 포함하여 작성할 것.
 - '~을 표현한 것이다.'의 형태로 작성할 것.

4. ㉡에서 사용된 비유적 표현을 조건에 따라 작성하시오.

- <조건>
- 한 문장으로 작성할 것.
 - '~을 ~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의 형태로 작성할 것.

5. 이 작품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작성하시오.

6. 구절 ㉔의 의미를 조건에 따라 작성하시오.

<조건>

- 한 문장으로 작성할 것.
- 대조의 방식을 활용할 것.
- ‘~을 의미한다.’의 형태로 작성할 것.

7. ㉔과 <보기>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조건에 따라 작성하시오.

<보기>

십 년(十年)을 경영하여 초려삼간(草廬三間)
지여 내니
나 혼 간 돌 혼 간에 청풍 혼 간 맞져 두고
강산은 들일 디 업스니 둘러 두고 보리라
-송순

<조건>

- 한 문장으로 작성할 것.

8. 다음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화자의 인식을 한 문장으로 작성하시오.

물로 마르기 전에 어미를 여윈 송아지는 움매
애 움매애 울었다.

9. 윗글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비유적 표현에 해당하는 표현법을 조건에 따라 작성하시오.

<조건>

- 한 문장으로 작성할 것.
- 표현법과 표현 효과를 함께 작성할 것.

10. ㉔와 ㉕의 단어 뜻을 각각 작성하시오.

정답 및 해설

내용 확인 문제

답 3쪽 참고

서술형 문제

1. <답> ㉠: 나 / ㉡: 마소
2. <답> ㉠: 우리 민족 / ㉡: 일제
3. <답> 한라산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삐죽채꽃이 작게 보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4. <답> 꽃을 별의 이미지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5. <답> 한라산의 아름다운 경치와 백록담에서 느끼는 신비로움이다.
6. <답> 살아 있는 자작나무와 죽은 자작나무가 함께 있음을 의미한다.
7. <답>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
8. <답>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함께 살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9. <답> 한라산 등반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이나 정서 등을 직유법을 통해 생생하게 드러내었다.
10. <답> ㉠ 기운이 다해 힘이 없어짐. ㉡ 맑고 깨끗함.

서지정보
저자 이재균
발행처 나무아카데미
isbn 979-11-6673-679-7
제본형태 hwp pdf 파일
발행일 2021.02.22
가격 1500원

